



담당 부서: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

녹색에너지과장	임미경	02-2133-3550
신재생에너지팀장	김선례	02-2133-3558
관련 누리집 (메뉴)		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4쪽

## 서울시, 신재생에너지로 전기 생산·충전하는 '종합에너지스테이션' 확대 나선다

(미래형 주유소)

- 11일(목) 5개 민간기관과 「종합에너지스테이션 전환·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」 업무협약
- ▲주유소·충전소의 TES 전환 ▲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친환경차량 충전 인프라↑ 상호협력
- 서울 500여 개 주유소·충전소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...단기간 내 인프라 구축 기대
- 시, “규제 개선 등 서울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”

- 전기차 보급 증가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, 서울시가 주유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, 전기·수소차 충전시설까지 갖춘 ‘종합에너지스테이션(Total Energy Station, 이하 TES)’ 확산에 나섰다.
- 서울시는 11일(목) 오전 10시 30분, 서소문청사 1동 회의실에서 대한석유협회, 대한엘피지협회, 한국석유유통협회, 한국엘피지산업협회, 한국주유소협회 등 5개 민간기관과 「종합에너지스테이션(TES)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」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- 종합에너지스테이션(TESS)은 전기 생산 및 친환경 차량 충전이 가능한 자가발전·충전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주유소다. 협약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에 전국 최초로 금천구 소재 SK박미주유소에 종합에너지스테이션(TESS) 1호점 설치한 데 이어, 양천구 개나리주유소, 영등포구 신길주유소 등 현재 3개소를 운영 중이다.
-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추진한 종합에너지스테이션(TESS) 사업 등을 바탕으로 내연기관차가 주로 이용하던 전통적인 주유소를 직접 전기 생산이 가능한 소규모 지역 친환경 에너지 발전기지로 전환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.
- 협약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5개 민간기관은 ①주유소 및 충전소의 종합에너지스테이션 전환, ②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친환경차량 충전 인프라 확충에 상호 협력하고, 앞으로 협력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예정이다.
- 시는 향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주유소에 설치해 송배전 손실을 경감하는 동시에 서울시 전력자립도와 전기공급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.
  - 연료전지는 설치 면적과 발생 소음이 작은 데 비해 효율은 우수하며,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어 추가 인프라 구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  - 주유소는 서울 도심 전력 수요지 내에 위치하여 원거리 송·변전 손실, 송·변전 설비 추가건설 등 사회적 비용 없이 전력공급이 가능하다.

-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차량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 시내 500여 개 주유소·충전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별도의 부지 확보 없이 단기간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.
  
-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“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종합 에너지스테이션은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주유소를 미래형 친환경 에너지 생산 공급기지로 변화시켰다는 큰 의미가 있다”며 “계속해서 관련 규제 개선에 힘쓰는 등 서울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

서울시는 11일(목) 오전 10시 30분, 서소문청사 1동 회의실에서 대한석유협회, 대한엘피지협회, 한국석유유통협회, 한국엘피지산업협회, 한국주유소협회 등 5개 민간 기관과 「종합에너지스테이션(TES)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」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(사진 왼쪽부터, 유기준 (사)한국주유소협회장, 박현동 한국석유유통협회 부회장,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,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부회장, 이호중 대한LPG협회장, 이한익 한국LPG산업협회장)